

야시마 산꼭대기로 가는 산책 코스

야시마 꼭대기까지는 주로 네 가지 산책 코스가 있는데, 각 코스마다 경승지와 명소가 있습니다.

가장 유명한 코스는 가타모토역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포장된 순례길로서 야시마지 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편도 약 1.5km, 소요 시간은 약 30 분입니다. 이 경로는 유명한 시코쿠 88 성지 순례길의 순례자가 즐겨찾는 길이며, 순례의 계기가 된 승려 구카이(774~835)와 인연이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야시마 기슭에는 구카이가 물이 나오기를 기도했을 때 땅속에서 솟아올랐다고 하는 천연 용수 ‘가지스이’가 있습니다. 순례길은 야시마지 절 산문에서 끝납니다.

야시마의 북쪽에는 더 험한 호쿠레이 등산로가 있으며, 나가사키노하나 가까이에서 유카쿠테이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1.5km 코스로 소요 시간은 약 30 분이지만, 지면이 울퉁불퉁하여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닙니다. 도중에 고켄잔 산이나 나오시마 섬 등 세토 내해의 섬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꼭대기의 유카쿠테이에서는 섬들과 바다를 한눈에 바라다볼 수 있습니다.

역사를 좋아하는 여행자에게는 야시마의 동쪽, 야시마히가시 초등학교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‘구 순례길’을 이용한 등산이 좋을 수 있습니다. 현대의 순례길과 마찬가지로 이 1.8km 길은 야시마지 절에서 끝납니다. 40 분 정도 걸으면 겐페이 전투(1180~1185) 당시 어려서 즉위한 안토쿠 천황(1178~1185)을 모시는 신사와 1185 년의 야시마 전투에서 지휘관을 위해 목숨을 바친 무사인 사토 쓰구노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. 야시마지 절에서 시코쿠 순례길의 다음 목적지인 야쿠리지 절로 향하는 순례자가 하산할 때 종종 이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.

야시마니시 옛길은 이 네 가지 경로 가운데서 가장 길고 가장 어려운 코스입니다. 야시마 서쪽에 있는 공원에서 시작되는 2km 코스로 산꼭대기까지는 약 40 분이 걸립니다. 경사가 급하고 울퉁불퉁한 언덕길이 이어지지만, 다카마쓰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.

야시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자동차 도로 ‘야시마 스카이웨이’는 보행자도 통행 가능합니다.